

2024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언어[문법] 편

이성호 저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2023/22/21/20/19/18 기출 수능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표지 안쪽

2024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언어[문법] 편

이성호 저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2023/22/21/20/19/18 기출 수능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구원 수능국어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서편〉 〈언어편〉 〈화법과 작문편〉 집필 (구원 수능국어 간행)

구원 수능국어 못 본 시 해석법 (구원 수능국어 간행)

수능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루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수능국어 쌍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자,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 언어[문법]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에 붙여

2024년 새로운 입시 체제와 신교육과정에 맞춰 새롭게 만든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어 일곱 권의 책으로 제시합니다. 곧 **독서,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실전모의고사** 등의 일곱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언어[문법]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신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배경 지식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단 기간에 지식적 측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제1부 언어 문법과 어문 규정 7

①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8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15

유형문제 27

02. 형태론 30

유형문제 54

03. 통사론 59

유형문제 80

04. 담화와 의미의미 변화국어 생활	85
유형문제	95
05. 국어의 변천사와 훈민정음	98
유형문제	114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118
유형문제	144
제2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152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쑤우우우우우우 올라갑니다.

가. 제1부 언어[문법]과 어문 규정

①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 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문제]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데 ‘새해맞이’는 [새(관형사)+해(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맞(동사의 어간)+이](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분석되고 ‘한몫하다’는 [한(관형사)+몫(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하(동사 어간)+다(동사 어미)](의미상 서술어)’의 형태로 분석되므로 ①, ②의 두 원리에 부합하다.

● 오답 비루기 ‘두말없이’는 “[두(관형사)+말(후행하는 명사)](의미상 주어)+[없(형용사 어간)+이](부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는 “[숨(동사의 어간)+은(관형사형 전성 어미)](관형어)+그림(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찾(동사 어간)+기(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 매답 ④

나. 제2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제1부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언어[문법]와 어문 규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OE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⑦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⑧중심적 의미나 ⑨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잡’을 뜻하는 ‘꿀잡’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 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35 ①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②~④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 | | |
|-------------------------|--|
| 보 기 | |
| ○ 동생은 오늘 ①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
| ○ 우리는 결코 ④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
| ○ 요즘 농촌은 ③논밭같이에 여념이 없다. | |
| ○ 우리 마을은 ⑤털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 |

- | | | |
|-----------|-----------|--------|
| ① ②, ④ | ② ④, ⑤ | ③ ④, ⑤ |
| ④ ②, ④, ⑤ | ⑤ ②, ④, ⑤ |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 분석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했을 때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집안싸움’은 ‘집(명사)’, ‘안(명사)’, ‘싸우(어간)’, ‘-ㅁ(명사 파생 접미사)’ 형태로 형태소가 분석되고 ‘논밭갈이’는 ‘논(명사)’, ‘밭(명사)’, ‘갈(어간)’, ‘-이(명사 파생 접미사)’ 형태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따라서 이 둘은 내부 구조가 동일하다.

오답 비루기 ‘새우볶음’은 ‘새우(명사)’, ‘-볶(어간)’, ‘-음(명사 파생 접미사)’ 형태로 형태소가 분석되고, ‘탈춤놀이’는 ‘탈(명사)’, ‘추(어간)’, ‘-ㅁ(명사 파생 접미사)’, ‘놀(어간)’, ‘-이(명사 파생 접미사)’ 형태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 해답 ②

36 윗글의 ②, ⑥와 연관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②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②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⑥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⑥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 ⑤ ‘꼬마전구’와 ‘꿀잠’은 ⑥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 분석 합성 명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입꼬리’의 중심적 의미는 입이고 주변적 의미는 꼬리이다. ‘도끼눈’의 중심적 의미는 눈이고 주변적 의미는 도끼이다. 따라서 이 둘은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다.

오답 비루기 ① ‘칼잠’의 중심적 의미는 칼이고 ‘구름바다’의 중심적 의미는 구름이다. ② ‘머리글’의 중심적 의미는 글이고 ‘물벼락’의 중심적 의미는 물이다. ③ ‘일벌레’의 주변적 의미는 벌레이고 ‘벼락공부’의 주변적 의미는 벼락이다. ⑤ ‘꼬마전구’의 주변적 의미는 꼬마이고 ‘꿀잠’의 주변적 의미는 꿀이다.

✓ 해답 ④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①~⑥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① 乃냉終중그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뺏느니라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② ㅇ를 입시율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율 가비야분 소리 듯외느니라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③ 첫소리를 어울워 끊다면 글밖 쓰라 乃냉終중그소리도 훈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종성 글자도 마찬가지이다]

④ ·와 __와 그와 ㄱ와 ㅋ와 ㅠ와란 첫소리 아래 브텨 쓰고

[‘·’, __, ㄱ, ㅋ, ㅠ’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⑤ ㅣ와 ㅏ와 ㅓ와 ㅑ와 ㅕ와란 올흔녀기 브텨 쓰라

[‘ㅣ’, ㅏ, ㅓ, ㅑ, ㅕ’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빼니, 불, 사방, 스그불, 빽, 흙

① ④ : 불, 빽, 흙

② ⑥ : 사방, 스그 불

③ ⑤ : 빼니, 빽, 흙

④ ⑥ : 불, 스그 불, 흙

⑤ ⑥ : 빼니, 사방, 빽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칙에 적합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분과 빽의 종성 글자는 초성 글자를 사용한 것이나 흙의 종성 글자 ‘리’은 초성 글자가 아니라 종성 글자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옆으로 나란히 쓴 것이다.

● 오답 비류기

② ‘사방’, 스그 불’의 ‘방’은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쓴 순경음 글자이다. ③ ‘빼니, 빽’의 초성 ‘빼, ㅂ’과 ‘흙’의 종성 ‘리’은 초성 글자를 합하여 옆으로 나란히 사용한 것이다. ④ ‘불, 스그 불, 흙’의 모음 ‘ㄱ, __, ·’ 등은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쓴 것이다. ⑤ ‘빼니, 사방, 빽’의 모음 ‘ㅣ, ㅏ’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쓴 것이다.

✓ 매답 ①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봅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ㅁ'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ㅁ'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ㅁ'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①~⑥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ㅁ'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 |
|--------------|---------------|
| ① 피로를 푸대[푼대] | ⑥ 더운 여름도[여름도] |
| ② 대문을 잡개[잡개] | ④ 품에 안겨라[안겨라] |
| ③ 학교가 큰지[큰지] | |

학생 : 그 이유는 [] 때문입니다.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①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⑥의 'ㅁ'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④의 'ㅁ'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④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⑥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장분석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안겨라'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안-(어간)', '-기(파동 접미사)', '-어라(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에 파동 접사가 결합한 것이어서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푼다'는 '푸(어간, ㄹ 탈락)', '-ㄴ다(현재 시제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가 맞다. ② '여름도'는 '여름(명사)', '-도(조사)'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ㅁ'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맞다. ③ '잡개'는 '잡(어간, ㅡ 탈락). ㅏ(종속적 연결 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ㅁ'과 'ㄱ'이 모두 어간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가 맞다. ⑤ '큰지'는 '크(어간)', '-ㄴ지(종속적 연결 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ㄴ'과 'ㅈ'이 어미로 결합된 소리가 맞다.

- ✓ 해당 ④

39 ⑦ ~ ⑩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⑦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⑧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⑨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⑩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⑦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⑩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⑦과 ⑧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⑦과 ⑨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⑩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⑩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⑨과 ⑩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안긴문장으로 사용된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은 ‘내 친구가 나에게 보낸 책을’이라는 관형절을 포함하고 있는 안긴문장인데 여기서 필수적 부사어 ‘나에게’가 생략되었다.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라는 문장은 ‘내가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라는 인용절로 안긴문장에서 주어 ‘내가’가 생략되었다.

● 오답 비루기 ② ⑦의 ‘내 친구가 보낸’은 관형절이다. ③ ⑦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에서 ‘내 친구가 보낸’은 주어가 들어 있는 안긴문장이고 ⑨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은 주어가 들어 있는 안긴문장이다. ④ ⑩의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라는 안긴문장은 ‘식당’을 수식하는 관형절이고 ⑩의 ‘신이 닳도록’은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⑤ ⑩의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라는 구절은 관형사절이나 목적어가 있고 ⑩의 ‘아름다운 관광지’는 관형사절이지만 ‘아름답다’가 형용사여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해답 ①

※ 다음은 ○○군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with the title "OO군 공식 누리집". The main content features a banner with the text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 and an illustration of a sailboat and birds. Below the banner, there are menu items: "OO군 소개", "정보 공개", "소통·참여", "분야별 정보", and a search bar. The main article is titled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 It includes the following text: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
고향 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기부 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①
○ 대상: ○○군 주민으로 제한함. ②
○ 기간: 2022. 9. 1.~2022. 9. 30.

A box contains the following text:
고향 사랑 기부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담례품(기부 지역의 특산품)이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③

At the bottom, there is a note: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followed by a download link: "(첨부 파일)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pdf" and two buttons: "다운로드" and "바로보기".

A question mark icon asks: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ith options: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and a "등록" button.

A box with a question mark icon asks: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with an answer: "담당자 기부금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and a "댓글 등록" button.

At the bottom, there are two sections: "민원 서비스 메뉴" with icons for "증명서 발급" and "주요 행정 서식", and "OO군으로 놀러 오세요" with icons for "두루미 생태 공원 동영상" and "국화 축제 동영상".

41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⑦은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 고 있다.
- ③ ⑦은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하여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⑧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⑨은 파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조사, 어미, 접미사의 용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우리 군에 대한 기부 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합니다.’라는 문장에서 전체의 서술어는 ‘공모합니다’이고 이에 대한 주어는 ‘군에서’이다. 격 조사 ‘에서’는 단체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므로 ①은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ㅂ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상대에게 정중하게 설명하여 알리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③ ‘대상 : ○○군 주민으로 제한함.’이라는 구절은 응모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④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 지역의 특산품)이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됩니다.’라는 문장에서 어미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 지역의 특산품)이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됩니다.’라는 문장에서 어미 ‘-되다’는 파동의 의미를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지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구실은 없다.

✓ 해답 ①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①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3) 언어와 사회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4) 언어와 문화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개념·어휘·크리닉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언어의 기능.

② 언어의 특성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예시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예시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뛴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뛰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채목이 되고 채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③ 문법의 4대 영역

-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__ , ㄱ+ㅏ ㄱ : 예사소리 파열음 __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oh 	자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문, 문 장의 구조, 담 화	출문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의 관계나 맥락 등 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 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 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2. 음운론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곰’과 ‘놈’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논’과 ‘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ㄱ과 ㅋ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1) 분절 음운[음소]

① 자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두 입술	잇잇몸, 혀끝	센입천장, 혓바닥	여린입천장, 허 뒤	목청 사이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② 모음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ㄱ	-	ㅏ
중모음	ㅓ	ㅚ	ㅓ	ㅗ
저모음	ㅓ		ㅓ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 소리의 길이 - 눈:[雪], 눈[眼] / 말:[言], 말[馬, 斗]

◎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잎 → [입]
	자음 동화	비음화 유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구개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킬랄]
			미닫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탈락	자음 탈락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 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ㄱ, ㄷ, ㅂ, ㅆ, ㅈ'과 같은 된 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젖+소 → [젖쏘] 신+고 → [신꼬]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ㅓ', 'ㅡ'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 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헛간, 횟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된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솜이불 → [솜니불]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ㅍ, ㅌ, ㅊ, ㅋ'이 되는 현상	좋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젖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ㅏ'와 'ㅓ'가 만나서 'ㅋ'로 바뀌거나 'ㅗ, ㅜ'가 'ㅏ, ㅓ' 앞에서 '과, 거'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01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꼰]'은 ④, '잎[입]'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꼰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참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아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활+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짐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받침 'ㄱ'을 '○'으로 교체한 것이고, '국[국]'과 [궁]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 오답 비루기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같다. ② '집일[짐닐]'에서의 [닐]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단일어 ③ 형인 '일[일]'과 다르게 ④ 형으로 바뀌었다. ③ '함[함]'과 [캄]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⑤ 음절 유형이 [화]는 ② 형이고 '활[활]'은 ④ 형으로 서로 다르다.

✓ 매답 ④

02 <보기>의 ⑦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ㅡ
중모음	ㅔ	ㅚ	ㅓ	ㅗ	ㅓ
저모음	ㅐ		ㅏ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⑦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 ② 2개의 중모음
- ④ 3개의 고모음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모음의 체계를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A]에 제시된 어휘를 최소 대립쌍으로 짹지어 보면 ‘쉬리/소리’에서 ‘ㅟ/그’, ‘마루/머루’에서 ‘ㅏ/ㅓ’, ‘구실/구슬’에서 ‘ㅣ/ㅓ’이고 ‘모래’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없다. 최소 대립쌍인 ‘ㅟ/그’, ‘ㅏ/ㅓ’, ‘ㅣ/ㅓ’를 [B]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적용해 보면 ‘ㅏ/ㅓ/ㅣ’의 세 개의 평순 모음을 찾을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내용에 어긋난다.
✓ 해당 ③

03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⑦ 흙일 → [홍닐] ⑧ 닳는 → [달른] ⑨ 발야구 → [발랴구]

- ① ⑦~⑨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⑦~⑨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⑦이다.
- ④ ⑧과 ⑨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⑨에서 첨가된 음운은 ⑦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⑧‘닳는’은 ‘닳’이 ‘ㄹ’로 교체되어 ‘달는’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달른’이 된다. 따라서 첨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⑦ ‘흙일’은 ‘ㄹ’이 ‘ㄱ’으로 교체되고 ‘ㄴ’이 첨가되어 ‘흑닐’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홍닐’이 된다. 이 때 ‘흙일’의 음운의 수는 ‘흙’이 ‘흙으로’ 쓰일 때 ‘ㄹ’과 ‘ㄱ’이 각각 발음되므로 6이고 ‘홍닐’의 음운의 수도 6이다. ⑨ ‘발야구’는 ‘ㄴ’이 첨가되어 ‘발냐구’가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발랴구’가 된다.

✓ 매답 ②

04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 〔가〕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 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 〔나〕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문양분석 제시된 음운 규칙에 알맞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읊고’의 음운 변동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읊고 → 읊고 → 읍고 → 읍꼬’의 형태가 된다. 즉 겹받침 ‘쿄’에서 ‘쿄’이 탈락되고(나) ‘쿄’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어 ‘쿄’이 된다.(가) ‘쿄’과 ‘쿄’이 만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쿄’은 ‘쿄’으로 교체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축약에 해당한다. ② 연음법칙과 된소리되기 즉 교체에 해당된다. ③ 파열음의 예사소리로의 교체에 해당한다.(가) ④ 축약에 해당한다.

✓ 해답 ⑤

05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것을 ⑦~⑩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⑦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⑦ 기+{어} → [기여]
- ⑧ 살피+{어} → [살펴]
- ⑨ 배우+{어} → [배워]
- ⑩ 나서+{어} → [나서]

① ⑦, ⑧

② ⑦, ⑨

③ ⑧, ⑩

④ ⑨, ⑩

⑤ ⑧, ⑩

- 문양분석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⑦ ‘살피+{어} → [살펴]’의 경우는 단모음 ‘ㅣ’와 ‘ㅓ’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쿄’이 된 예이고, ⑨ ‘배우+{어} → [배워]’의 경우는 단모음 ‘ㅜ’와 ‘ㅓ’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쿄’이 된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⑧ ‘기+{어} → [기여]’의 경우는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즉 단모음 ‘ㅣ’와 ‘ㅓ’ 사이에 반모음 [j]가 들어가 ‘ㅓ’가 ‘쿄’로 발음되는 예이다. ‘기+{어} → [겨]’라고 써야 ⑩의 예가 된다. ⑩ ‘나서+{어} → [나서]’는 단모음 ‘ㅓ’가 탈락하는 예이다.

✓ 해답 ③

06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밥], 잡다 → [잡짜]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텅]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뜰’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ㄷ’의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매답 ③

07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볼,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① []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장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뀜에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루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

✓ 해답 ②

08 밑줄 친 말이 <보기>의 ⑦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아’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와 ‘가’는 ⑦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아’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되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바르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매답 ①



01 <보기>에서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회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이트(white)'라고 하기도 하고 '블랑(blanc)'이라고도 한다.

- | | |
|-------|-------|
| ① 역사성 | ② 사회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 ⑤ 규칙성 | |

02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와 관련된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 언어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겨난 언어는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존재했던 사회나 사물, 현상 등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칭하던 언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나) '맥도날드 할머니' 권△△ 씨가 돌봐줄 가족 없이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에는 '김치녀의 최후'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거처도 없는 권 씨가 허영심 때문에 매일 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자신문을 읽으며 과거의 '우아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된장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김치녀'로 변화했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 끼 밥값에 해당하는 브랜드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의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빗댄 김치녀라는 말은 본래 '명품을 밝히고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 확대되고 있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추상성 |
| ③ 자의성 | ④ 규칙성 |
| ⑤ 창조성 | |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보기|

- | | |
|---------------------|----------------|
| 자음 : ① 파찰음 예사소리 | ② 파열음 거센소리 |
| 모음 : ③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④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않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자’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닳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쌓고’를 [싸코]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Rightarrow [내복냑] \Rightarrow [내봉냑]

ⓐ ⓑ

나뭇잎 \Rightarrow [나뭇입] \Rightarrow [나문닙] \Rightarrow [나문닙]

ⓒ ⓑ ⓒ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와 ③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⑤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0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ㅍ, ㅌ, ㅊ, ㅋ’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그리어’가 ‘그려’로, ‘보아서’가 ‘봐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보기 2]

	<u>어간</u>	<u>어미</u>	<u>표기</u>	<u>발음</u>
ㄱ.	낳-	-고	낳고	[나코]
ㄴ.	않-	-아	않아	[아나]
ㄷ.	지-	-어	져	[져]
ㄹ.	돌리-	-어	돌려	[돌려]
ㅁ.	오-	-아서	와서	[와서]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07 ‘음운의 대치’와 이에 대한 예를 짹자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의 대치	예
①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허웅 → [허은]
②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 ㅁ’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닫는다 → [단는다]
③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순례→ [술례]
④	끌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 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젖히다 → [저치다]
⑤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ㄲ,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막다 → [막따]

제2부 ————— 언어[문법] 정답 및 해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문제 01]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1 ③

- 문양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각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자의성이 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변화한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속성이다. 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2 ⑤

- 문양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창조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 속성이다. ③ 언어와 의미가 아무런 관련 없이 맺어진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3 ②

- 문양분석 실제 발음상 제시된 음운이 다 실현되는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좋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이고 ‘ㄱ’은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또 ‘ㅌ’은 파열음 거센소리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실타]의 ‘ㄱ’은 유음이다. ③ [안타]의 ‘ㄴ’은 비음이다. ④ [잔따]의 ‘ㄸ’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⑤ [절따]의 ‘ㄸ’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04 ④

- 문양분석 제시된 음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학문’이 [학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의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ㅈ’이 ‘ㅉ’으로 교체되었다. ② ‘ㅋ’이 ‘ㄱ’으로 교체되었다. ③ ‘ㅎ’이 탈락되었다. ⑤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되었다.

05 ①

- 문양분석 제시된 음운 변동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①에서는 ‘약’이 [냑]으로 바뀌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다. ‘콩엿’도 [콩넴]으로 발음되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② ‘복냑’이 [봉냑]으로 발음되고 ‘먹는’도 [멍는]으로 발음된다. ③ ‘뭇’이 [묻]으로 바뀌었다. ④ ‘암’이 [닙]으로 바뀌었다. ⑤ ‘물닙’이 [문닙]으로 바뀌었다.

06 ②

- 문양분석 축약의 예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앓아’는 [아나]로 발음되었으므로 ‘ㅎ’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다. ③, ④ 둘 다 ‘ㅣ’와 ‘ㅓ’가 만나 ‘ㅓ’로 축약되었다. ⑤ ‘그’와 ‘ㅏ’가 만나 ‘나’로 축약되었다.

07 ④

- 문양분석 음운 대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젖히다’에서는 ‘ㅈ’이 ‘ㅎ’을 만나 ‘ㅊ’으로 발음되었으므로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 ②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 ③ ‘ㄴ’이 ‘ㄹ’ 앞에 와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감다’는 끝자리가 ‘ㅁ’인 용언 어간에 안울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발음된다.